

장성 호남고속철 터널 붕괴 1명 매몰

나흘째 구조작업... 생사여부 몰라

사고후 6시간 지나 구조 요청 초동대처 허술

호남고속철도 터널 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가 일어나 근로자 1명이 매몰, 나흘째 구조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생사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지난 1일 밤 9시55분께 장성군 북이면 호남고속철도 달성터널 공사현장 5-1공구에서 붕괴사고가 일어나 슐크리트(터널 굴착 뒤 붕괴 예방 위한 응급조치) 작업 중이던 유모(44)씨가 매몰됐다.

당시 터널 안에서는 5명이 작업 중이었으며 4명은 토사가 흘러내리자 신속히 대피했지만, 소규모 슐크리트 업체 대표로 재하청방이 인부들과 공사중이던 유씨는 여태 이르는 자신의 중장비를 가지고 나오려다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다.

4일 전남도소방본부에 따르면 붕괴사고로 매몰된 유씨에 대한 구조를 위해 사고 현장에서 구급대 등 관계자들이 밤샘 작업을 벌이고 있다.

유씨는 전체 터널 1360m 가운데 600m, 땅속 20m 지점에 파묻혔으며 무전기를 소지하고 있었지만 사고 발

생 2~3분 만에 무전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군과 경찰, 119구조대는 매몰된 지 상당 시간이 흘렀지만 희망을 놓지 않고 굴착기 등 중장비와 60여명을 동원해 흙을 파내면서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추가 붕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 2명을 투입했으며, 매몰지 구조상 일부 여유 공간이 있어 생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하로 공기를 내려보내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4일 오전 터널 상판부가 드러남에 따라 암반파쇄기와 산소공급기 등을 투입해 토사를 빼내는 등 구조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유씨가 매몰됐을 것으로 보이는 장소 주변의 지반이 약해 토사가 흘러내리고 있어 작업이 중단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한편 공사업체 측은 사고가 난 지 6시간 가량이 지난 2일 새벽 3시께 119에 구조 요청을 해 구조작업이 지연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업체 측은



지난 1일 밤 9시께 장성군 북이면 죽청리 호남고속철 5-1공구 달성터널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매몰된 인부 구조작업이 벌어지고 있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kwangju.co.kr

“자체적으로 구조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급히 구조작업을 하느라 경황이 없어 신고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조작업을 마치는 대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이 약해 예로가 많다”며 “터널 입구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여름에 내린 잦은 비 등으로 지반이 약해진 야산에서 토사가

흘러내려 콘크리트 타설 공사 중인 터널 상판이 무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119관계자는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지반이 약해 예로가 많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지난 3일 장흥군 안양면 기산리 청계영농조합법인 표고버섯 가공공장에서 불이나 수습역원(사업자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후 진화되고 있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kwangju.co.kr

추석이 코앞인데 ...

장흥 안양 표고버섯공장 불 수습역 피해

지난 3일 오전 10시 35분께 장흥군 안양면 기산리 표고가공업체인 청계영농조합법인 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1동을 모두 태우고 3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날 불로 2300㎡ 규모의 공장 1동

과 공장에서 추석 선물용으로 준비 중이던 버섯 가공품과 기계 등이 불에 타 수습역원의 재산피해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불이 날 당시 휴식 시간이라서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이날 불이 저온창고에서 처음 시작됐다는 목격자들의 말에 따라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정확한 화원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했다. 청계영농조합법인은 전국 표고유

통 공급에 주도를 이끌고 있는 업체로 당장 추석을 앞두고 서울 롯데백화점과 홈플러스 등 전국 유명 판매업체와 계약을 맺은 물량 모두가 불에 타 공급에 차질을 빚게됐다. 이 법인에 표고를 납품하는 1200여 생산자들 또한 큰 피해를 입게됐다.

한편 청계영농조합법인 대표인 선옥규씨는 “비록 화재로 인해 많은 재산피해를 입어 안타까운 일지만 최대한 빨리 생산라인을 복구해 1200여 생산자가 소득보존과 장흥 특산물 표고버섯 명예를 살려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전남도의원이 동료의원 맥주병 폭행

만취 건설소방위원장 연찬회에서 부위원장 가격

전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이 연찬회 과정에서 동료 의원인 부위원장을 맥주병으로 내리치는 등 폭행해 말쑥이다. 지난 1일 전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0명의 의원들과 관계공무원 등 20여명이 나주시 다도면에 있는 중흥골드스파에서 1박 2일 일정의 연찬회를 가졌다. 사건은 연찬회가 끝난 뒤 마련된 만찬장 자리에서 A위원장과 8명의 의원이 별도로 술소에 모여 얘기를 나누던 중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8명의 의원들이 술소에 모인 가운데

A위원장이 발언하자 B부위원장이 앉으라며 2차례 제지하자 A위원장이 갑자기 탁자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들어 B부위원장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알려졌다. 맥주병을 맞은 B부위원장은 머리에 피가 많이 흐르자 함께 있던 의원들이 밤 8시50여분께 119에 신고, 조대병원으로 후송돼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후 광주시 남구 진월동의 C병원에 입원했다. 이에 대해 A위원장은 “나이 어린 B부위원장이 반말조로 말을 해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랬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조사가 시작되자 의원들은 “B부위원장이 넘어지면서 머리를 찰랐다”고 한결같이 진술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나원침



김용환국장 영결식 8일 광주시葬으로

중국 투자유치 활동 도중 순직한 김용환(55) 광주시 투자고용국장(광주일보 9월 2일 6면)의 영결식이 오는 8일 광주시葬(葬)으로 치러진다.

광주시는 4일 “고 김 국장의 유해가 4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운구돼 광주 서구 매월동 천지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영결식은 오는 8일 오전 시청사 내 문화관에서 유가족과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며 장지는 강진군 성전면 월남리 선영이다. 고 김 국장은 중국 투자유치 활동 마지막날인 지난 1일 새벽 4시 중국 안후이성 태안시 한 호텔에서 과로사로 순직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김선미(54)씨와 2남이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벌에 쏘이고... 주택 불... 택시 화재... 주말 사망 사고 잇따라

광주·전남지역에서 추석을 앞두고 벌초에 나선 60대가 벌에 쏘여 숨지는 등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라 사망과 부상자, 실종자가 속출했다. 4일 오전 9시50분께 나주시 경현동 진동저수지 부근 야산에서 벌초하던 정모(66)씨가 벌에 쏘여 숨졌다. 전남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정씨가 벌초에 파만응해 숨진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3일 밤 9시21분께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의 2층 조립식 주택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나 인방에 있던 최모(44)씨와 딸 박모(16)양은 그 자리에서 숨졌다. 함께 있던 김모(44)씨는 화상을 입고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또 같은날 오후 7시 25분께 화순군 한천면 모산리 교각 아래 도로변에 세워진 개인택시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가 불을 끄지만 차 안에서 임모(47)씨가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중부취재본부=김정희기자 chkim@

4일 오후 4시12분 해남군 화원면 신덕리 사동마을에서 운행 중이던 경운기가 추락해 경운기에 탑승했던 주민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오전 10시 40분께 담양군 대전면 한 야산 임도에서 송모(53)씨가 몰던 경운기가 3m 아래 논으로 굴렀다. 이 사고로 송씨가 경운기에 깔려 그 자리에서 숨졌고 경운기 적재함에 타고 있던 최모(49)씨는 추락 순간 몸을 날려 화를 면했다. 지난 3일 오후 5시께 신안군 임자면 하우리 앞 해삼에서 영광선적 9㎡급 연안저항 어선 M호 선원 염모(53)씨가 추락,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고 해경이 수색에 나섰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오전 10시 25분께 함평군 해보면 한 저수지에서 지모(49·광주시 광산구)씨가 천다포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중부취재본부=김정희기자 chkim@

“안산시 아파트 타워 크레인 고용해 달라” 경기민노총, 건설사측 화순 골프장앞 시위

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타워분과 경기남부지부(이하 민노총 타워분과)는 4일 ‘동광건설이 진행중인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민노총 조합원 3명 전원을 고용해야 한다’며 이 회사의 관계사에서 집회를 열었다. 반면 업체와 계약은 이미 타 업체와 맺고 현장인력을 운용하고 있어 이같은 주장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민노총 타워분과 소속 조합원 35명은 이날 동광건설 관계사인 동광레저개발(주)의 화순 무등산 CC입구에서 집회를 열고 “경기도 안산에서 아파트(발주처 LH공사) 시공을 하고 있는 동광건설이 민노총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우리 측과)타워 크레인 임대 계약을 기피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노조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은 “우리와 계약을 기피하는 이유는 노동 3권 보장을 주장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동광레저개발(주) 관계자는 “본사인 동광건설이 타워 크레인 임대업체인 건설타워와 임대 계약을 맺었음에도 민노총 타워분과 측에서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있다”며 “최근 건설타워 측으로부터 민노총 타워분과 소속 2대, 한국노총 소속 1대 등 모두 3대를 사용하겠다는 공문을 받았는데, 민노총 타워분과에서는 3대 모두 조합원 고용을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합원들은 이날 2시간 동안 집회를 한 뒤 동광건설 본사가 위치한 광주시 서구 생충동으로 자리를 옮겨 노숙 집회를 벌였다. /중부취재본부=정운수기자 unsu@

14만 합격자가 말한다

2012 학년도 대학편입은 김영과 함께

상위권 대학편입대비, 자타공인 대한민국 No.1

편입영어(이론과정/문제풀이)

자연계열 편입합격의 열쇠, 지방 유일 실강의!

편입수학미, 적분과정/선형대수

전남대 편입 Hot Point!, 전남대 맞춤형 Teps-

Teps 大개강 (Teps + 면접대비)

편입합격자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기여편이하인

미인보구권

광주 동부경찰서 뒤 (062) 227-8088

www.kimyoung.co.kr 개강 : 10월 1일